MACRO
VIEW

2026. 5. 8

Global Macro Team

허진욱 Chief Economist
james_huh@samsung.com

정성태 Senior Economist
sungtai.chung@samsung.com

양지성 Economist
jisung.yang@samsung.com

금종호 Economist
jongho.keum@samsung.com

구민정 Economist
mj.gu@samsung.com

한성민 Research Associate
sungmin0108.han@samsung.com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Week Ahead: 5월 둘째 주

Great Resilience: Fed/BOK call 수정

- 팬데믹 이후 4번의 공급 충격에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은 강한 회복력을 시현. 이전 3번의 충격과 비교할 때, 이란 사태의 부정적 영향은 아직 제한적 수준
- 유가 전망 상향과 강한 펀더멘털 회복력을 반영하여, Fed 9월 인하 전망을 동결로 수정(12월 인하 전망은 유지). BOK는 올 8월 인상과 내년 1Q 추가 인상을 예상

- **Great Resilience**: 여전히 이란 사태 및 호르무즈 봉쇄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100달러 내외의 높은 국제유가 흐름이 유지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 증시는 5월 들어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강세를 보였던 달러화도 두 달 전 수준으로 복귀함.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주요국 장단기 국채 금리는 이란 사태 이후 약 30~70bp 급등하였고, 금 가격도 10%이상 하락함.

  팬데믹 이후 4번의 공급 충격(팬데믹 공급망 차질, 러-우 전쟁, 상호관세, 그리고 이란 사태)이 발생할 때마다, 번번이 "Stagflation narrative"가 확산되지만 실제로 현실화되지는 않음. 특히, 이전 3번의 공급 충격과 비교할 때, 이번 이란 사태는 그 범위와 지속기간 측면에서, 아직은 주요국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 수준. 금주 발표된 4월 선진국 및 신흥국 제조업/서비스업 PMI의 예상 밖 호조가 그 단적인 증거. 이는 팬데믹 이후 지난 7년간 보여주었던 미국 및 세계 경제 펀더멘털의 견고함과 강한 회복력(resilience)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 그 핵심 동인은 적절한 재정 및 통화정책 대응으로 판단.

- **국제유가 전망 상향 조정:** 당사는 5월 중 종전 합의 도출을 여전히 기본 시나리오로 유지함. 다만, 이미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반영하여, 월평균 WTI 국제유가 전망을 5월 90달러, 6월 83달러, 7월 77달러(vs. 기존 83달러, 77달러, 7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이란 사태 이전으로의 정상화 시점은 8월 이후로 전망.

- **Fed와 한국은행 금리 전망 수정:** 4월 FOMC의 easing bias 반대 의견(3명)이 잘 보여주듯, 호르무즈 정상화 지연에 따른 고유가의 지속과 주요국 경제 및 금융시장의 강한 회복력 확인은 주요국 중앙은행이 당분간 경기(고용)보다는 물가 압력에 우선 순위를 두게 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 Fed의 경우, 당사는 여전히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허들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함. 그러나,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고유가와 이에 따른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의 불안정(상승)을 감안할 때, 올 3Q까지는 핵심 PCE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3.0~3.3%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당사의 기본 시나리오하에서도 9월 FOMC까지는 물가의 둔화를 확신하기에는 이른 시점으로 판단함. 이를 반영하여, 당사는 9월 인하 전망을 동결로 수정하며, 12월 인하 전망은 유지.

  한편, 한국은행의 경우, 연말까지 동결 전망을 올 8월 인상으로 수정하며, 내년 1Q 중 추가 인상을 예상함. 이는 물론 단기적으로 고유가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을 감안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올해와 내년 한국 성장률의 대폭 상향 조정임.

(다음 페이지에 계속)

예상을 크게 상회한 1Q GDP 서프라이즈는 반도체가 주도하는 수출 호조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설비투자용 건물투자) 등을 통해 내수로 trickle-down 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줌. 2Q 이후 예상되는 추경의 마중물 효과, 수출 기업들의 대규모 상여금 지급, 국내 증시 급등의 wealth effect 등이 시간이 갈수록 가시화되면서, 하반기에는 내수 모멘텀의 회복이 예상됨. 이에 힘입어 한국 경제는 올해 2.7%에 이어, 내년에도 2.4%로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경기 확장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한국은행은 향후 12개월 동안 최소 2회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 참고로 당사는 지난 5월 4일 ECB에 대해서도 기존 동결에서 6월 인상(9월 추가 인상 확률: 40%)으로 수정함.

- **채권에 대한 중립 의견 유지:** 이번 Fed/ECB/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궤적 상향 수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전망은 여전히 선물시장에 반영된 시장 기대보다 다소 dovish함. 현재 선물시장은 향후 12개월 동안 Fed는 동결 혹은 약 1회 인상, ECB는 3회 인상, 한국은행은 최대 4회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채권에 대한 3개월 및 12개월 중립 투자의견을 유지함. 물론, 이란 사태에 따른 고유가 추세가 당사의 기본 시나리오를 벗어날 경우, Fed 12월 동결, ECB 9월 인상, 한국은행 연내 2회 인상 등의 리스크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다만, 현 시점에서 전망의 리스크는 상방과 하방 리스크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

(허진욱)

Preview

주요 지역별 정책 및 경제 지표 Preview

미국: 다음 주에는 4월 소비자물가(12일)와 소매판매(14일)가 발표 예정이다. 4월 headline과 core CPI는 각각 전월 대비 0.6%와 0.3% 상승하여, 전년 대비 3.7%와 2.7%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3월 3.3%와 2.6%와 비교할 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headline의 상승세는 예상대로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 핵심 물가로의 전이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시켜 줄 전망이다. 한편, 4월 전체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5%로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 소매판매도 0.4%로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이란 사태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제 소비지출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줄 전망이다.

중국: 다음 주에는 4월 물가지표(11일)가 예정되어 있다. 4월 중국의 생산자물가는 전년 대비 1.8%, 소비자물가는 0.8%로 예상한다(전월 대비로는 각각 0.6%와 -0.1%). 중국의 생산자물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이 고조된 이후 42개월 만에 (+)로 전환되었으며, 4월에도 그 여파가 이어지며 (+)를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공급측 충격에 따른 물가상승이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자동차 등 전반적인 상품(goods) 소비의 부진과 돈육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상승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다.

금융시장 Preview

글로벌 금융시장: 여전히 이란 사태 및 호르무즈 봉쇄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100달러 내외의 높은 국제유가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 증시는 5월 들어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강세를 보였던 달러화도 두 달 전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주요국 장단기 국채 금리는 이란 사태 이후 약 30~70bp 급등하였고, 금 가격도 10%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팬데믹 이후 4번의 공급 충격(팬데믹 공급망 차질, 러-우 전쟁, 상호관세, 그리고 이란 사태)이 발생할 때마다, 번번이 "Stagflation narrative"가 확산되지만 실제로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이전 3번의 공급 충격과 비교할 때, 이번 이란 사태는 그 범위와 지속 기간 측면에서, 아직은 주요국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 수준이다. 금주 발표된 4월 선진국 및 신흥국 제조업/서비스업 PMI의 예상 밖 호조가 그 단적인 증거이다. 이는 팬데믹 이후 지난 7년간 보여주었던 미국 및 세계 경제 펀더멘털의 견고함과 강한 회복력(resilience)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 그 핵심 동인은 적절한 재정 및 통화정책 대응으로 판단한다.

고유가 지속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을 감안하여, 당사는 Fed의 9월 인하를 동결로 수정하며, 한국은행도 연내 동결에서 8월 인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주 초 ECB에 대해서도 6월 동결에서 인상으로 수정한 바 있다. 주요국 금리 궤적 상향 수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전망은 여전히 선물시장에 반영된 시장 기대보다 다소 dovish하다. 현재 선물시장은 향후 12개월 동안 Fed는 동결 혹은 약 1회 인상, ECB는 3회 인상, 한국은행은 최대 4회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에 대한 3개월 및 12개월 중립 투자의견을 유지한다. 물론, 이란 사태에 따른 고유가 추세가 당사의 기본 시나리오를 벗어날 경우, Fed 12월 동결, ECB 9월 인상, 한국은행 연내 2회 인상 등의 리스크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 시점에서 전망의 리스크는 상방과 하방 리스크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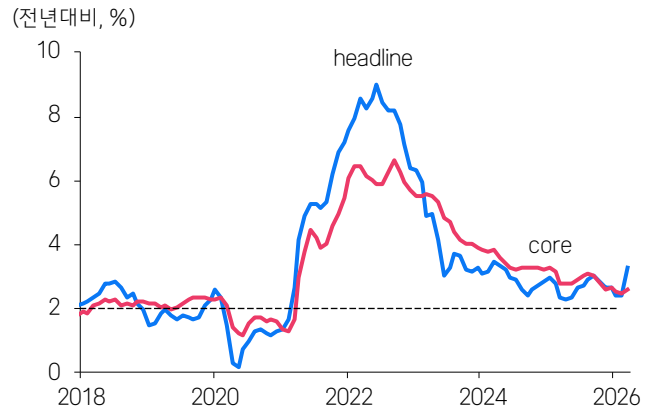
Macro Events: Week Ahead

지역	날짜	지표명	단위	컨센서스	전기	영향	비고
경제 지표							
미국	5월 11일	4월 기존주택매매	전월 대비	2.4%	-3.6%	상	
	5월 12일	4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지수	96.0	95.8	중	
		4월 CPI	전월 대비	0.6%	0.9%	상	
		4월 Core CPI	전월 대비	0.3%	0.2%	상	•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
	5월 13일	4월 PPI	전월 대비	0.5%	0.5%	상	
	5월 14일	4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0.5%	1.7%	상	• 이란 사태에도 양호한 소비지출 흐름 유지 전망
유로존	5월 13일	3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	0.4%	상	
독일	5월 12일	5월 ZEW 전망 지수	지수	-	-17.2	중	
		5월 ZEW 동향 지수	지수	-	-73.7	중	
영국	5월 14일	1분기 GDP	전기 대비	-	0.1%	상	
중국	5월 11일	4월 생산자물가	전년 대비	1.8%	0.5%	상	• 중동 갈등 42개월 만에 (+) 전환
		4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0.8%	1.0%	상	• 소비 부진 및 돈육가격 하락으로 낮은 수준 예상
일본	5월 15일	4월 생산자물가	전년 대비	3.0%	2.6%	상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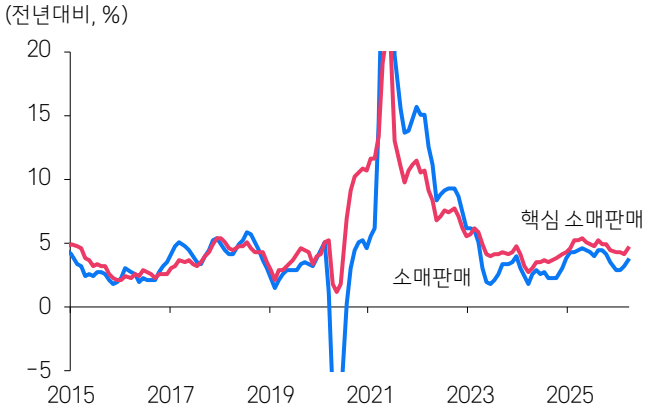
〉〉 차주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 지표

미국 CPI: Headline vs. 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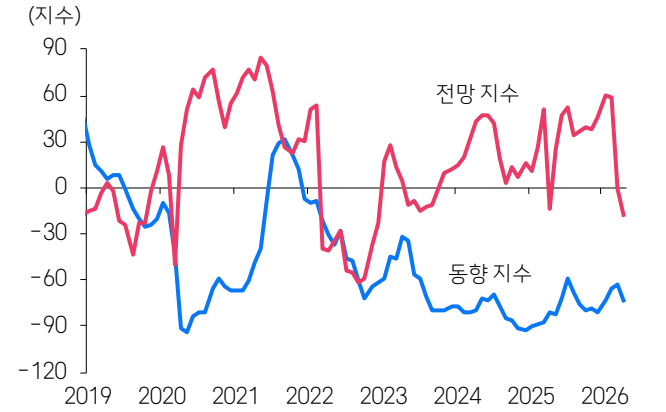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미국 전체 및 핵심 소매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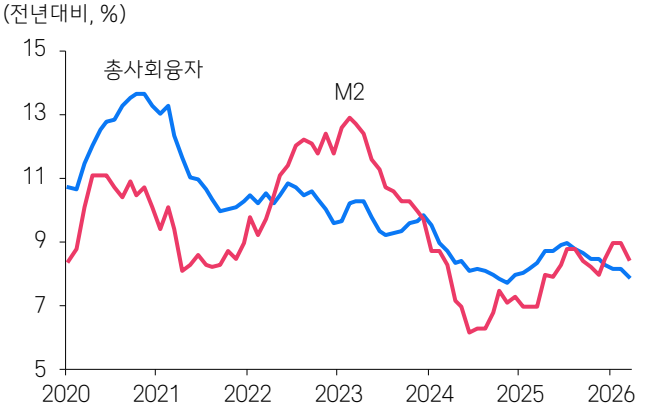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독일 ZEW 동향, 전망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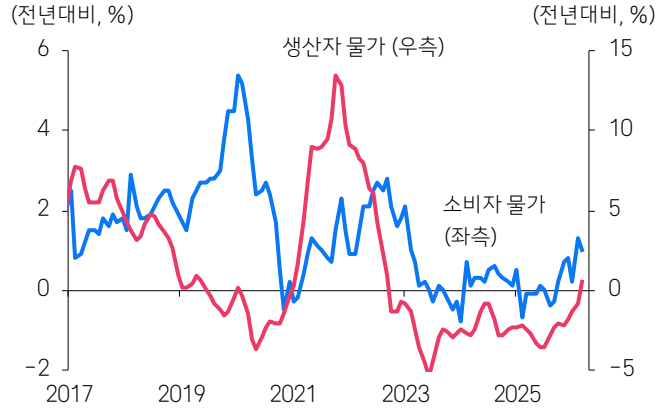
자료: Leibniz 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중국 총사회융자 vs. M2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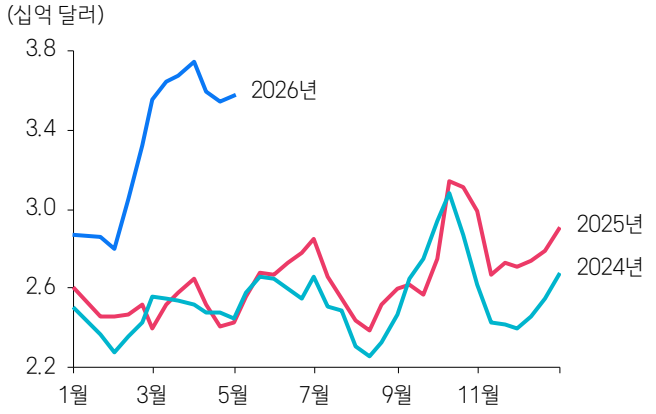
참고: 총사회융자는 잔액 기준
자료: 중국 인민은행, 삼성증권

중국 물가지표 추이: 소비자 물가 vs. 생산자 물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한국 일평균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삼성증권

Review

주요 Event와 시사점

미국: 이번 주에는 4월 ADP 민간고용(6일)이 발표되었다. 4월 ADP 민간고용은 전월 대비 10.9만명 증가하면서 전월(6.1만 명 증가, 이하 전월 대비)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업종별로 보면 주로 교육·보건·의료 고용이 6.1만 명 증가한 영향이었으며, 무역·운송·공공서비스도 2.5만 명 증가로 전월(5.4만명 감소)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0.2만 명 증가로 전월(1.2만 명 감소) 대비 (+) 전환했으며, 그 외 금융(0.9만 명 증가), 정보 및 레저·접객 부문(각각 0.4만명 증가) 등 업종 고용도 양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업의 경우 1만 명 증가로 전월(3.2만 명 증가) 대비 증가 폭이 둔화되었다.

중국: 이번 주에는 4월 RatingDog 서비스업 PMI(6일)가 발표되었다. 4월 RatingDog 서비스업 PMI는 3월 대비 0.5p 상승한 52.6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52.0, Bloomberg 기준)을 상회했다. 다만, 국가통계국 서비스업 PMI는 49.6으로 0.6p 하락하여 전반적으로는 3월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한다. 세부 지표를 보면, 신규 주문은 52.6으로 상승했으나 가격과 고용 지수는 모두 49.7를 기록하면서 물가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RatingDog과 국가통계국의 결과가 상반된 것은 연안과 그 외 지역의 경기 격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각 성시의 1분기 GRDP를 보면, 산둥, 저장, 상하이 등 경제가 견고한 연안 지역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 이번 주에는 4월 소비자물가(6일)가 발표되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6%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Bloomberg 기준)에 부합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2.2%, 이하 전년 대비)보다 높아진 것은 글로벌 유가 상승의 영향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 정책에도 석유류 가격이 크게 상승(3월 9.9% → 4월 21.9%)했으며 상승 기여도는 3월 0.39%p에서 4월 0.84%p로 높아졌다. 한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2%로 3월과 같았다. 국제 항공료가 15.9% 상승했으나, 에너지를 제외한 공업제품의 가격 상승은 둔화하고 서비스는 3월과 같은 수준(2.4%)을 유지하면서 유가 상승의 여파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이번 주에는 3월 현금급여(8일)이 발표되었다. 후생노동성의 월간 근로통계 조사에 따르면 3월 현금급여 총액(명목,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은 31.7만엔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면서 전월(3.4%) 대비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견고한 수준을 유지했다. 항목별로 보면, 기본급이 3.1%(이하 모두 전년 대비)로 2개월 연속 3%를 상회했으며 이밖에 초과근무수당이 1.9%, 보너스 등 특별급여 항목은 -1.5%를 기록했다. 한편, 소비자 물가 둔화에 따라 실질 기준 현금급여는 1.0%로 3개월 연속 (+)를 지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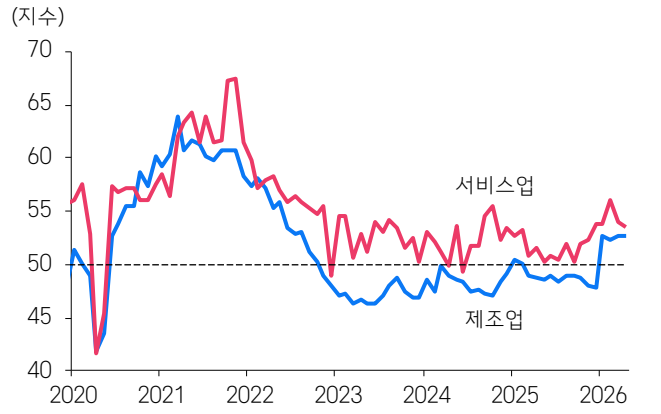
Macro Events: Week Review

지역	날짜	지표명	단위	컨센서스	실제치	전기	예상 대비	비고
경제 지표								
미국	5월 4일	3월 공장주문	전월 대비	0.6%	1.5%	0.3%	Above	
	5월 5일	4월 ISM 서비스업 지수	지수	53.7	53.6	54.0	Below	
		3월 신규주택매매	전월 대비	3.0%	7.4%	8.9%	Above	
		3월 JOLTS 구인 건수	천 명	6,850.0	6,866.0	6,922.0	Above	
	5월 6일	4월 ADP 고용	천 명	120.0	109.0	61.0	Below	• 교육·보건·의료 고용 증가, 건설업 둔화
	5월 8일	4월 비농업고용	천 명	65.0	-	178.0	-	
		4월 시간당 임금	전월 대비	0.3%	-	0.2%	-	
		4월 실업률	%	4.3%	-	4.3%	-	
		5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지수	49.5	-	49.8	-	
유로존	5월 4일	5월 Sentix 투자자신뢰지수	지수	-22.0	-16.4	-19.2	Above	
	5월 7일	3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0.3%	-0.1%	-0.3%	Above	
독일	5월 7일	3월 공장주문	전월 대비	1.0%	5.0%	1.4%	Above	
	5월 8일	3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0.4%	-	-0.3%	-	
중국	5월 6일	4월 RatingDog 서비스업 PMI 지수	전월 대비	52	52.6	52.1	Above	
	5월 9일	4월 수출	전년 대비	8.4%	-	2.5%	-	
		4월 수입	전년 대비	20.0%	-	27.8%	-	
		4월 신규 위안화대출(누적)	십억 위안	8,950.0	-	8,600.0	-	
		4월 총 사회융자 규모(누적)	십억 위안	16,142.0	-	14,830.0	-	
		4월 M2	전년 대비	8.5%	-	8.5%	-	
일본	5월 8일	3월 현금급여 상승률	전년 대비	3.2%	2.7%	3.4%	Below	• 기본급 2개월 연속 3% 상회해 견고한 수준
한국	5월 6일	4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2.6%	2.6%	2.2%	In-line	• 석유류 가격 상승 기여도 증가
		4월 핵심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2.2%	2.2%	2.2%	In-line	•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공업제품 가격 둔화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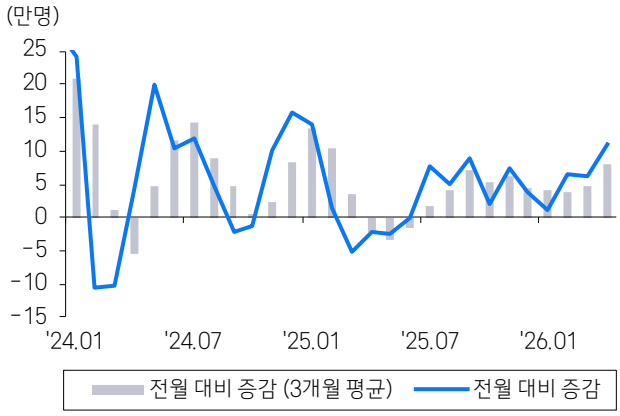
〉〉 금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미국 ISM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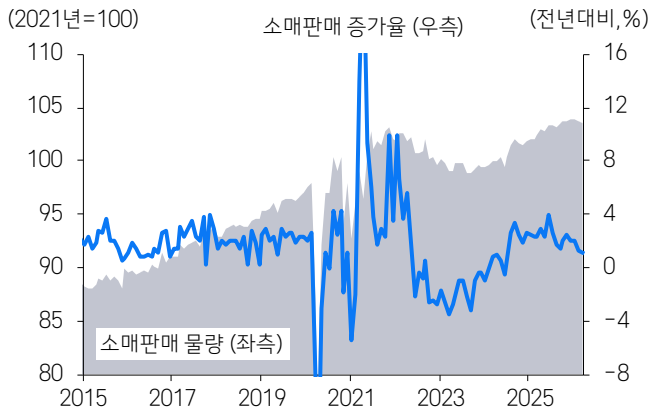
자료: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미국 ADP 민간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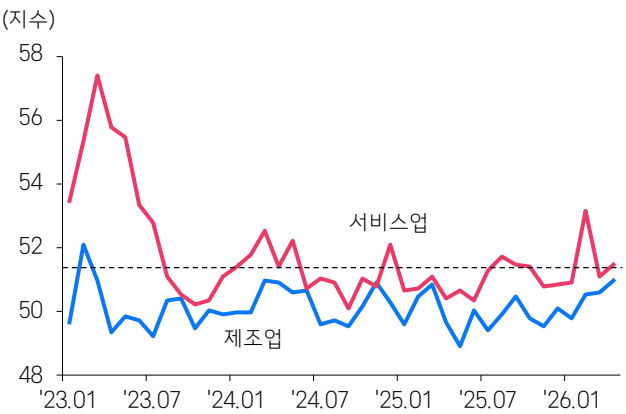
자료: Automatic Data Processing, Inc.

유로존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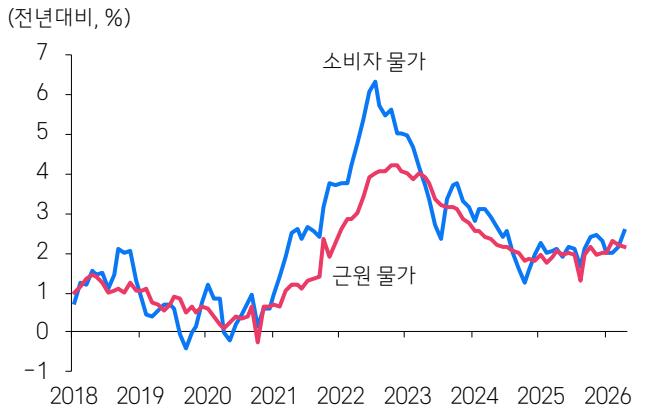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중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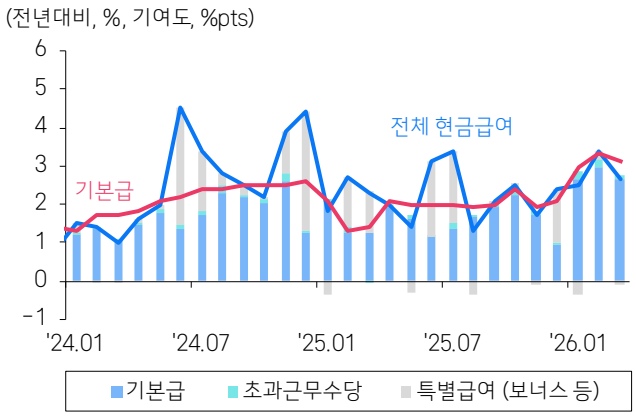
참고: 중국 국가통계국과 RatingDog의 평균 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S&P Global, 삼성증권

한국 소비자 물가 추이: 전체 vs 근원물가



자료: 국가데이터처

일본 현금급여 상승률: 항목별 breakdown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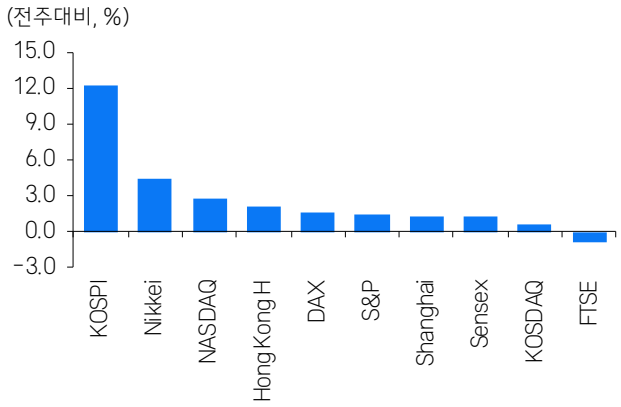
금융시장 동향 (5월 8일 13시 기준)

주식시장: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승했다. 한국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기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따른 기업 실적 기대가 반영되며 코스피는 12.5% 상승했고, 장중 사상 최초로 7,500선을 돌파했다. 미국에서는 대형주와 AI 관련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S&P500과 나스닥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각각 1.5%, 2.8%를 기록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반도체 공급 협상 진전 소식, 유가 하락 등이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유럽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며 유로스톡스50은 1.5%를 기록했다.

외환시장: 이번 주 달러 인덱스는 98.2로 전주 대비 강보합을 기록했으나 주중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기대감 변화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시행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란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WTI 기준 국제유가가 106달러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급등하면서 달러는 주 초반 상승 출발했으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중단을 발표하고 이란과의 최종 합의를 위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강세 폭을 되돌렸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달러는 다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달러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7원에서 1,465원으로 하락했다. 미국-이란 휴전 기대감으로 유가가 100달러를 하회하고 한국 증시가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큰 폭의 호조를 기록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주 달러 대비 원화는 0.8%, 위안화 0.3%, 파운드 -0.2%, 엔화와 유로화는 강보합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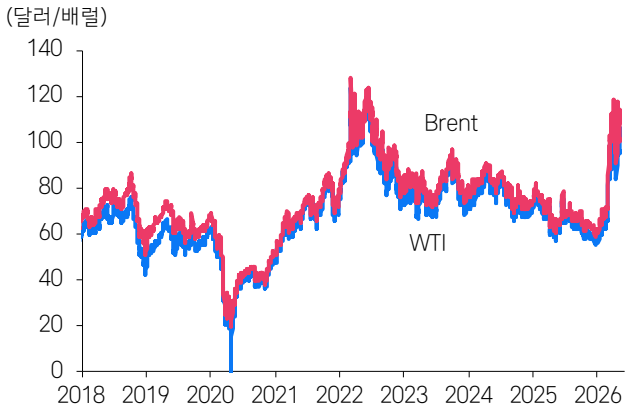
원자재: 이번 주 WTI는 $101.9에서 $95.6으로, 브렌트는 $108.2에서 $101.3으로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의 안전한 이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를 중립국 지원을 위한 인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국방부 장관이 양국 간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하며 유가 하락 압력이 확대되었다. 이후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군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히며 휴전 불확실성이 재차 부각되었고, 유가 하락폭은 일부 축소되었다.

주요국 주식시장 등락



참고: 5월 8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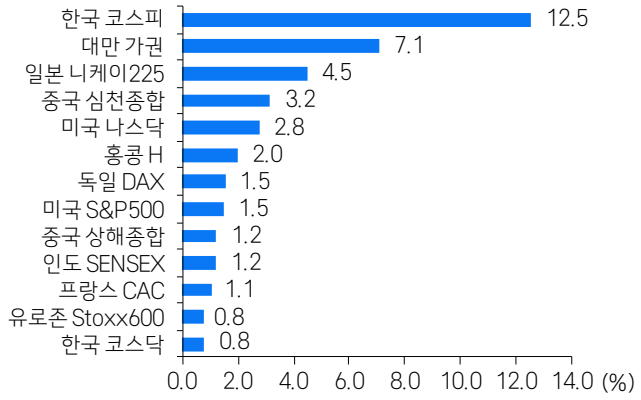
국제 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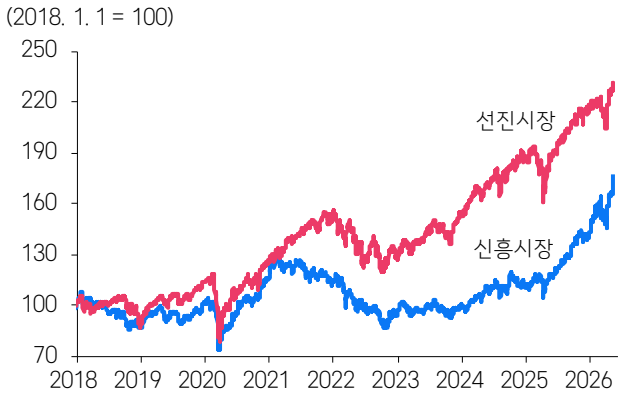
〉〉 금융시장 동향

주요국 증시 performance (전주 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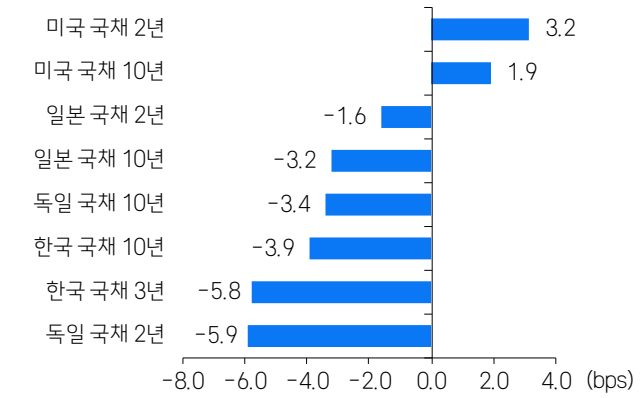
참고: 5월 8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MSCI 선진시장 vs. 신흥시장 (Local Curr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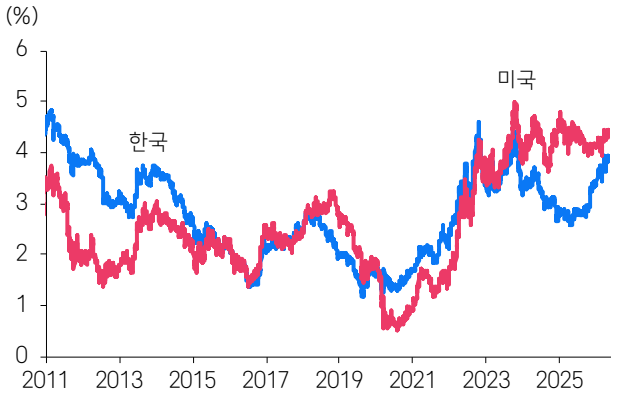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요국 국채 수익률 변화 (전주 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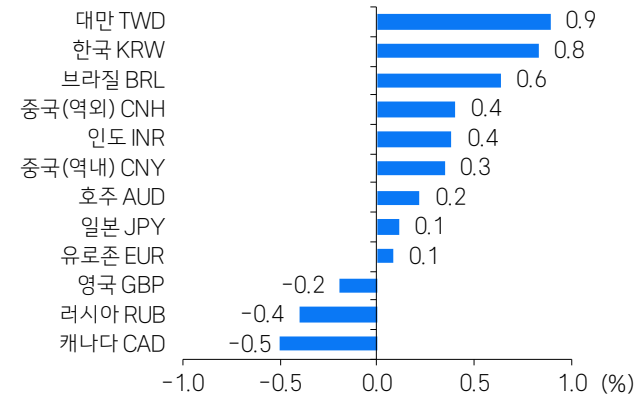
참고: 5월 8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한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절상률 (전주 말 대비)



참고: 5월 8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국제 유가

자료: Bloomberg

주요국 통화정책 update

국가명	정책 금리 (%)	직전 (%)	통화정책 변화일	정책 금리 변화 (bps) 3개월	1년	변화 내용
주요국						
미국	3.50~3.75	3.75~4.00	25.12.10	0	(75)	4월 FOMC 및 파월 의장 기자 회견은 3연속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당분간 "Wait and See" 모드를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 현재 FOMC 참여자들 대부분의 강한 컨센서스는 이란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dual mandate의 양방향 리스크, 즉, 물가의 상방 리스크와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높아짐에 따라, 당분간 정책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추가 지표들을 확인/평가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 파월 의장도 통화 정책의 변화를 결정하는 데,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 강조
유로존	2.00	2.25	25.06.05	0	(25)	ECB, 4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 금리 동결은 만장일치였으나, ECB 판단은 3월과는 달라진 모습. ECB는 물가 상승 압력, 성장 하방 압력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3월에서 제시된 기본 시나리오 궤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최근의 인플레 상방 압력 및 성장 하방 압력이 당초 ECB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
한국	2.50	2.75	25.05.29	0	(25)	한국은행,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통방문에서는 성장률은 '2월 전망치(2.0%)를 하회할 것'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월 전망치(2.2%)를 상당 폭 상회할 것'으로 제시. 이창용 총재는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와 관련해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상·인하 논의가 크지 않았다고 밝힘
일본	0.75	0.50	25.12.19	0	25	일본은행,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75%로 동결. BOJ는 핵심 소비자물가 전망을 '26년과 '27년 모두 2.6%로 상향조정하며, 노동력 부족에 따른 물가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1월에는 각각 2.2%와 2.1%). 아울러,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장기화, AI 수요 둔화, 외환시장 불안정 등을 전망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음. 오후에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우에다 총재의 발언도 마찬가지로 hawkish했음
영국	3.75	4.00	25.12.18	0	(50)	BOE, 4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 중앙은행은 중동 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전망이 불확실한 것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며, 2%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경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힘
중국	1.40	1.50	25.05.08	0	0	중국 인민은행은 3월 양회에서 "적절히 완화적"인 정책을 이어가겠다면서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또한, 정책 금리 및 지준율 인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힘. 다만, "사회의 종합적인 융자 비용을 낮추겠다"는 문구를 "…융자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변경
기타 지역						
멕시코	6.50	6.75	26.05.07	(50)	(250)	멕시코 중앙은행, 5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5bp 인하. 중앙은행 측은 물가 전망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2027년 2분기 중 물가가 목표치인 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 또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을 끝으로 2년 넘게 지속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종료한다고 밝힘.
인도	5.25	5.50	25.12.05	0	(75)	인도 중앙은행,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총재는 중동 전쟁으로 성장과 물가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며, 앞으로 성장, 인플레이션 흐름 등을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힘
브라질	14.50	14.75	26.04.29	(50)	(25)	브라질 중앙은행, 4월 통화정책회의에 기준 금리 25bp 인하. 중앙은행 측은 GDP 성장 둔화에 따른 실물경제 부담을 반영해 금리를 인하했으나,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긴축적이라고 평가
튀르키예	37.00	38.00	26.01.22	0	(900)	튀르키예 중앙은행,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통화정책위원회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승했다고 언급. 또한 지정학적 위험이 2차 파급 효과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방 위험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힘
인도네시아	4.75	5.00	25.09.17	0	(10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정책 기조는 루피아화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2026~2027년 물가상승률을 목표 범위인 2.5±1% 내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힘
호주	4.35	4.10	26.05.05	50	25	호주 중앙은행, 5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5bp 인상. 중앙은행 측은 성명서를 통해 국내 경기와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평가. 특히 중동 분쟁 장기화 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단기 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에 따라 단기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
스웨덴	1.75	2.00	25.10.01	0	(50)	스웨덴 중앙은행, 5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현재 경기 성장세와 물가 모두 전망치를 하회하나, 전쟁으로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시,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
스위스	0.00	0.25	25.06.19	0	(25)	스위스 중앙은행,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중동 긴장 고조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몇 분기 동안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기적으로는 스위스프랑 강세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으로 전망
러시아	14.50	15.00	26.04.24	(150)	(650)	러시아 중앙은행,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50bp 인하. 중앙은행 측은 근원 물가 상승률이 아직 둔화되지 않았으며, 러시아 중앙은행 추산 기준 연율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또한 대외환경과 재정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
뉴질랜드	2.25	2.50	25.11.26	0	(125)	뉴질랜드 중앙은행,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통화정책위원회는 중동 전쟁과 급등하는 유가가 뉴질랜드의 경제에 미칠 여파를 가늠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
캐나다	2.25	2.50	25.10.29	0	(50)	캐나다 중앙은행,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올해 초 성장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관세와 무역 불확실성이 수출과 기업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힘

주요 금융시장 동향 (1/2)

	5월 1일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변화율							
							1 week	1 month	3 months	6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YTD
주식시장 (지수)														
KOSPI	6,599	6,937	6,937	7,385	7,490	7,419	12.4	26.3	45.8	87.6	187.6	170.3	195.2	76.0
미국 S&P 500	7,230	7,201	7,259	7,365	7,337	7,337	1.5	8.2	5.8	9.0	29.5	41.4	77.3	7.2
일본 NIKKEI 225	59,513	59,513	59,513	59,513	62,834	62,390	4.8	10.8	15.0	24.1	68.9	63.3	115.5	23.9
영국 FTSE	10,364	10,364	10,219	10,439	10,277	10,277	(0.8)	(3.1)	(0.9)	6.1	20.5	23.0	32.1	3.5
독일 DAX	24,292	23,991	24,402	24,919	24,664	24,664	1.5	2.4	(0.2)	4.6	5.6	33.3	54.6	0.7
중국 상해종합	4,112	4,112	4,112	4,160	4,180	4,162	1.2	4.2	2.4	4.1	24.2	33.0	22.6	4.9
홍콩 H	8,682	8,774	8,730	8,801	8,919	8,860	2.1	2.1	(1.9)	(4.4)	6.7	37.2	28.5	(0.6)
인도 Sensex	76,914	77,269	77,018	77,959	77,845	77,845	1.2	0.4	(6.9)	(6.5)	(3.1)	6.0	26.0	(8.6)
인도네시아 JCI	6,957	6,972	7,057	7,092	7,174	7,172	3.1	(1.5)	(9.6)	(14.6)	5.0	1.2	5.9	(17.1)
브라질 iBovespa	187,318	185,600	186,754	187,691	183,218	183,218	(2.2)	(4.7)	0.1	18.9	34.5	41.5	72.8	13.7
MSCI World (USD)	4,674	4,647	4,677	4,754	4,741	4,741	1.4	6.3	4.7	9.6	27.9	39.6	67.7	7.0
MSCI EM (USD)	1,601	1,649	1,648	1,699	1,724	1,724	7.6	12.0	14.4	24.8	52.1	61.6	74.2	22.7
채권금리 (%)														
한국 국채 3년	3.59	3.62	3.62	3.60	3.54	3.54	(6)	22	29	64	126	10	28	58
한국 국채 10년	3.92	3.93	3.93	3.94	3.88	3.88	(4)	24	16	66	125	34	56	49
미국 국채 2년	3.88	3.95	3.94	3.87	3.91	3.91	3	12	41	35	3	(93)	(9)	43
미국 국채 10년	4.37	4.44	4.42	4.35	4.39	4.39	2	10	18	29	1	(11)	88	22
일본 국채 10년	2.52	2.52	2.52	2.52	2.48	2.49	(3)	12	26	81	115	160	207	42
독일 국채 10년	3.04	3.09	3.06	3.00	3.00	3.00	(3)	6	16	34	47	54	68	15
중국 국채 10년	1.75	1.75	1.75	1.76	1.76	1.76	0	(5)	(5)	(5)	13	(54)	(99)	(10)
인도 국채 10년	7.02	7.02	7.02	6.92	6.93	6.96	(6)	6	22	44	56	(18)	(9)	38
인도네시아 국채 10년	6.85	6.80	6.82	6.74	6.61	6.62	(23)	2	18	44	(24)	(35)	14	55
브라질 국채 10년	13.96	14.06	14.07	13.92	14.03	14.03	7	23	27	23	18	248	175	30
JPM EMBI Global	221.4	220.0	218.6	216.5	214.4	214.4	(7)	(24)	(9)	(30)	(99)	(84)	(187)	(17)
장단기 금리차 (%)														
미국 국채 10년-2년	0.49	0.49	0.48	0.48	0.47	0.48	(1)	(2)	(23)	(5)	(2)	82	98	(21)
일본 국채 10년-2년	1.13	1.13	1.13	1.13	1.11	1.11	(2)	13	17	37	41	51	66	22
독일 국채 10년-2년	0.39	0.36	0.39	0.43	0.42	0.42	3	(3)	(34)	(26)	(34)	89	72	(32)
중국 국채 10년-2년	0.45	0.45	0.45	0.47	0.46	0.46	1	3	5	12	28	13	12	1
한국 국채 10년-3년	0.32	0.32	0.32	0.34	0.34	0.34	2	3	(14)	2	(0)	25	29	(9)

(다음 페이지에 계속)

주요 금융시장 동향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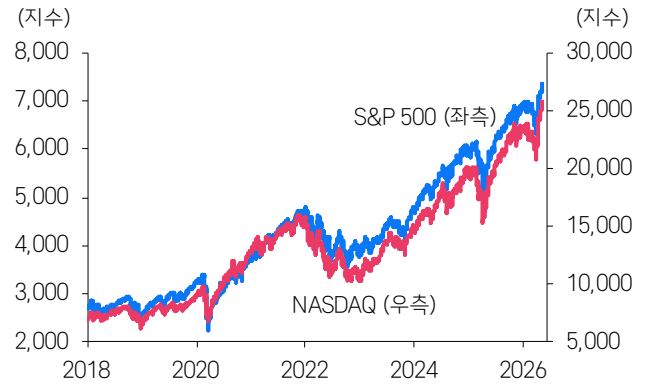
	5월 1일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변화율 (%, bps)							
							1 week	1 month	3 months	6 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YTD
CDS Premium (bps)														
미국 (5년)	39.0	39.0	39.5	38.4	38.4	38.4	(1)	(2)	4	(1)	(19)	(3)	(32)	9
일본 (5년)	16.9	16.9	16.9	17.0	17.0	17.0	0	0	2	5	5	2	2	2
독일 (5년)	28.8	29.0	28.8	28.4	28.4	28.4	(0)	(4)	6	5	(3)	(7)	(17)	7
중국 (5년)	5.0	5.0	5.0	5.0	5.0	5.0	0	1	2	(1)	(3)	(1)	(5)	2
한국 (5년)	43.8	43.6	43.3	42.4	42.4	42.4	(1)	(6)	(2)	0	(16)	(22)	(32)	(1)
인도네시아 (5년)	90.3	91.3	90.0	87.1	87.1	87.1	(3)	(7)	8	10	(6)	15	(9)	19
브라질 (5년)	120.2	120.2	120.1	118.8	115.9	115.9	(4)	(21)	(13)	(30)	(62)	(23)	(106)	(22)
멕시코 (5년)	86.4	88.0	87.4	84.7	84.7	84.7	(2)	(6)	(3)	(16)	(51)	(7)	(36)	(6)
상품가격														
CRB지수	393.4	401.1	398.5	388.0	387.7	387.7	(1.4)	5.9	25.3	28.8	32.8	34.2	46.9	29.8
WTI (달러/배럴)	101.9	106.4	102.3	95.1	94.8	95.6	(6.3)	1.2	50.4	59.9	59.5	21.0	30.6	66.4
두바이유 (달러/배럴)	100.9	106.9	104.5	97.6	96.2	96.2	(4.6)	(7.7)	43.2	48.1	52.7	14.3	26.1	55.0
LME 구리 (달러/톤)	12,997	12,997	13,135	13,392	13,393	13,393	3.1	5.4	3.1	25.0	42.0	35.2	56.1	7.8
금 (달러/oz)	4,614	4,522	4,557	4,691	4,686	4,723	2.4	0.1	(4.9)	18.0	42.9	104.5	133.7	9.3
은 (달러/oz)	75.36	72.77	72.85	77.37	78.46	79.87	6.0	7.8	2.6	65.3	146.0	192.2	212.6	11.5
옥수수 (센트/부셸)	468.3	473.8	465.5	452.8	452.8	452.8	(3.3)	1.2	5.2	6.0	3.1	1.6	(31.0)	2.8
소맥 (센트/부셸)	624.5	629.5	616.5	606.0	601.8	601.8	(3.6)	3.7	13.6	14.0	17.3	(2.3)	(6.1)	18.7
달러화 대비 환율														
한국 원화	1,477	1,474	1,474	1,448	1,456	1,466	0.8	0.8	(0.1)	(0.3)	(4.1)	(7.0)	(9.9)	(1.8)
일본 엔화	157.01	157.24	157.88	156.39	156.93	156.80	0.1	1.1	0.3	(2.2)	(6.9)	(0.8)	(13.8)	(0.0)
유로화	1.172	1.169	1.169	1.175	1.173	1.173	0.1	0.6	(0.7)	1.4	4.5	9.2	6.6	(0.1)
중국 위안화 (역내)	6.828	6.828	6.828	6.813	6.804	6.804	0.4	0.4	1.9	4.7	6.4	6.2	1.6	2.7
중국 위안화 (역외)	6.831	6.831	6.828	6.814	6.809	6.804	0.4	0.4	1.9	4.7	6.5	6.3	1.7	2.5
인도 루피화	94.92	95.09	95.29	94.62	94.25	94.41	0.5	(1.9)	(4.0)	(6.1)	(9.2)	(11.5)	(13.3)	(4.7)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17,353	17,380	17,425	17,389	17,342	17,378	(0.1)	(2.1)	(2.9)	(4.0)	(5.1)	(7.7)	(15.4)	(4.0)
브라질 헤알화	4.955	4.964	4.911	4.924	4.924	4.924	0.6	3.6	6.0	8.3	15.0	3.4	1.7	11.2
달러 인덱스	98.16	98.37	98.44	98.02	98.07	98.21	0.1	(0.9)	0.6	(1.4)	(2.4)	(6.9)	(3.1)	(0.1)
아시아 달러 인덱스	92.2	92.2	92.1	92.7	92.9	92.7	0.5	0.2	0.3	1.6	1.1	2.4	(1.8)	0.5
JPM 이머징 통화지수	47.34	47.08	47.41	47.66	47.66	47.66	0.7	1.2	0.1	3.7	5.3	2.1	(6.3)	2.3

참고: 5월 8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Refinitiv

주요 금융시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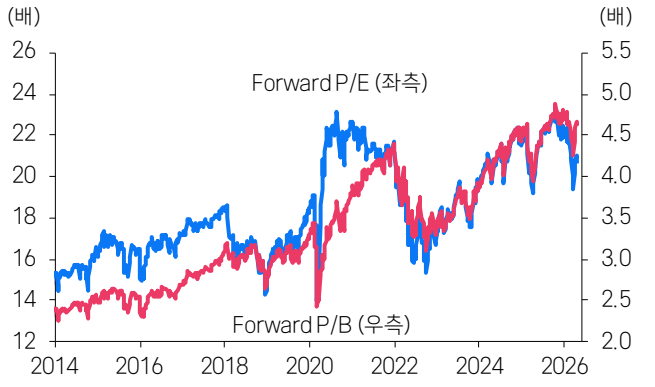
》 미국

S&P 500과 NASDAQ 명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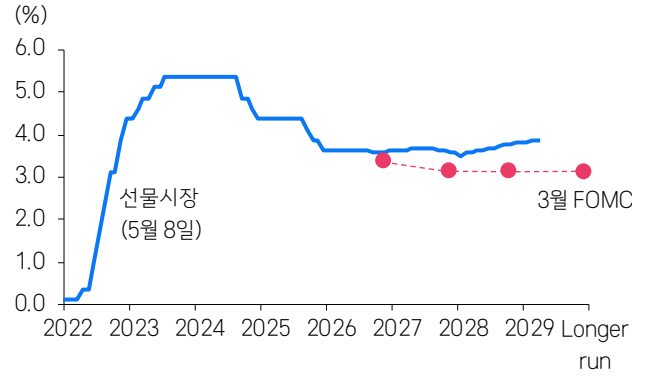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P 500: Forward P/E와 P/B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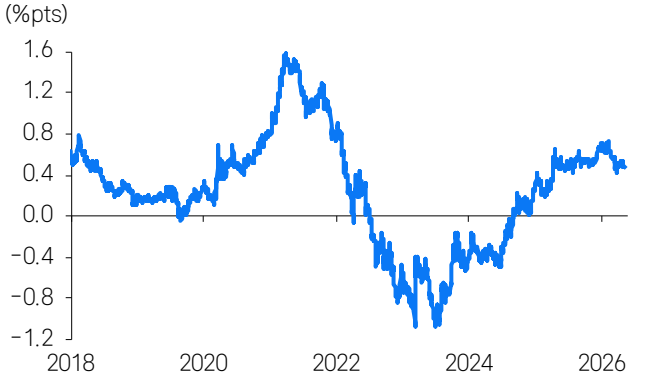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반영된 기준 금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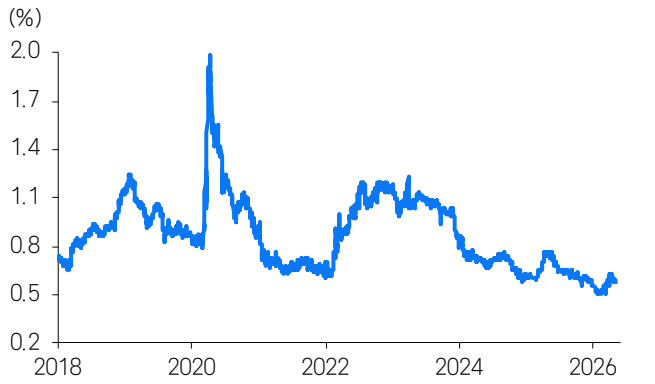
참고: 발표된 기준 금리는 목표 범위의 중간값 기입
자료: Bloomberg

장단기 금리 차 추이 (10년물-2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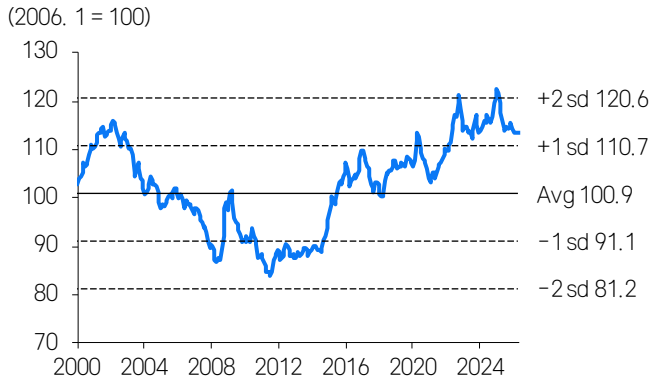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회사채 Baa - Aaa 스프레드 추이



자료: Moody's,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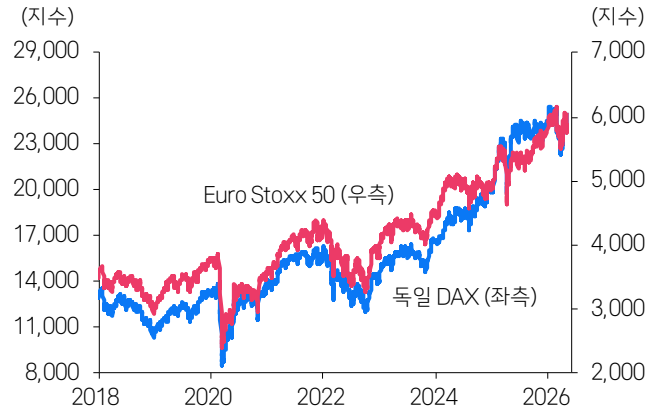
Fed 달러 지수 추이



자료: Federal Reserve,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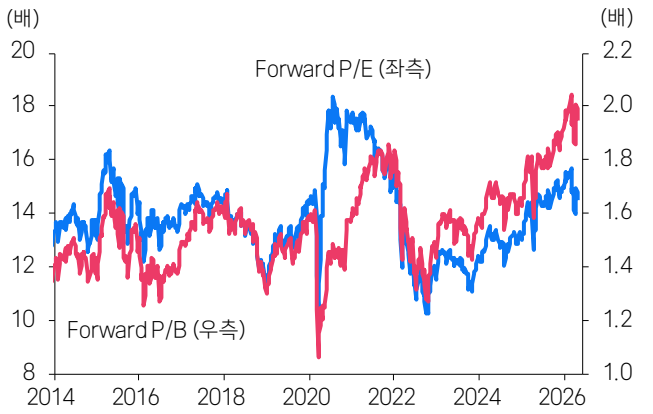
〉〉 유럽

독일 DAX 지수와 Euro Stoxx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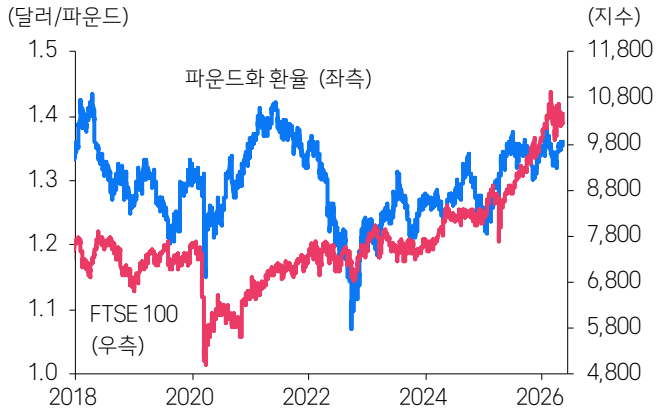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EMU 12개월 forward P/E와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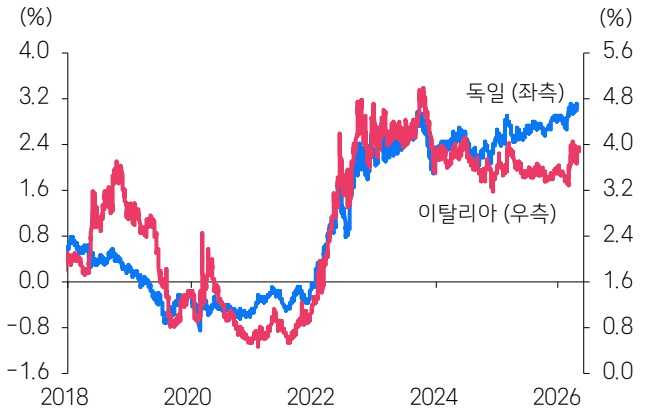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영국 FTSE100과 파운드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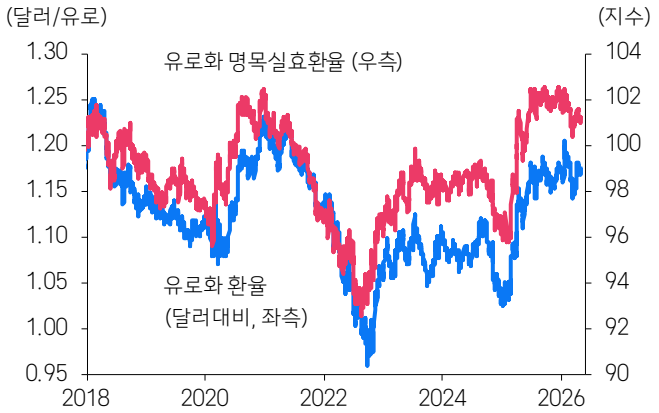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독일,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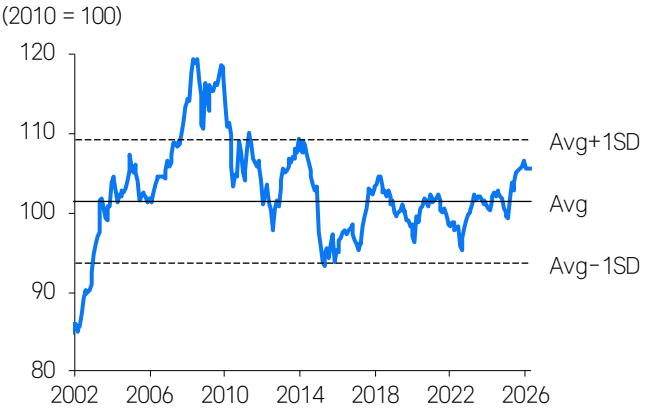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로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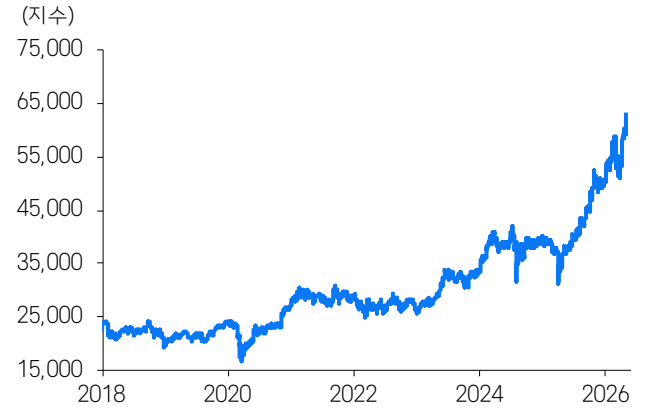
유로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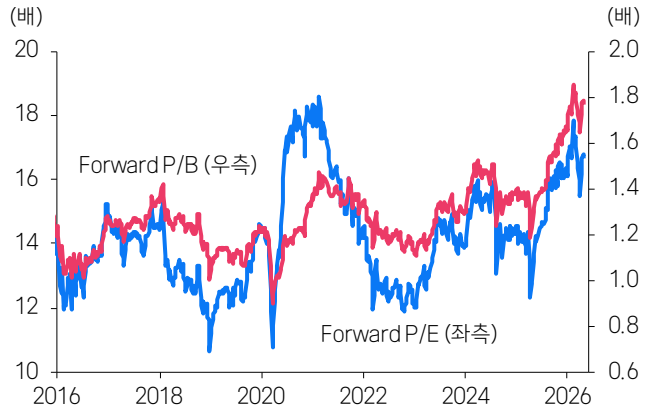
〉〉 일본

일본 NIKKEI225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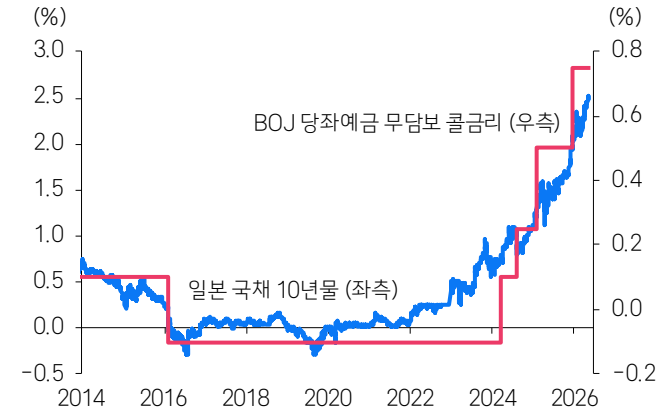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Japan: Forward P/E와 P/B 추이



자료: Refinitiv

BOJ 정책 금리, 일본 국채 10년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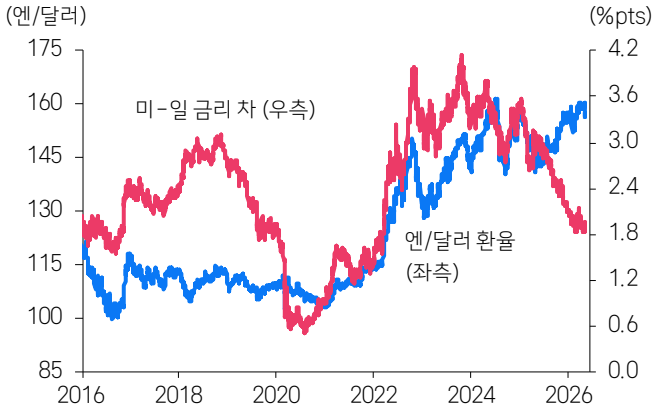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장단기 금리 차 추이 (일본 국채 10년물-2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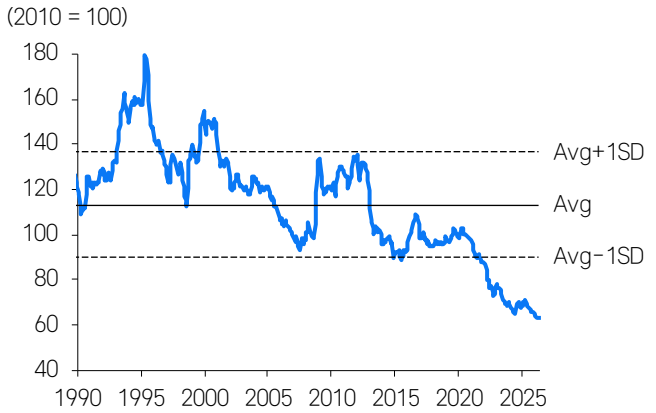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일 금리 차와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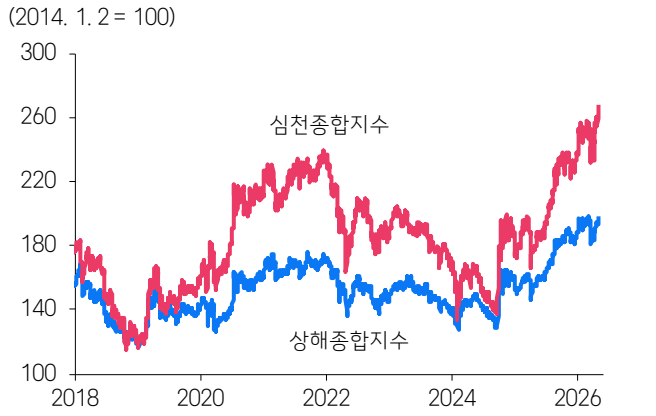
엔화 실질 실효 환율



자료: BIS, 삼성증권

〉〉 중국

중국 상해 및 심천종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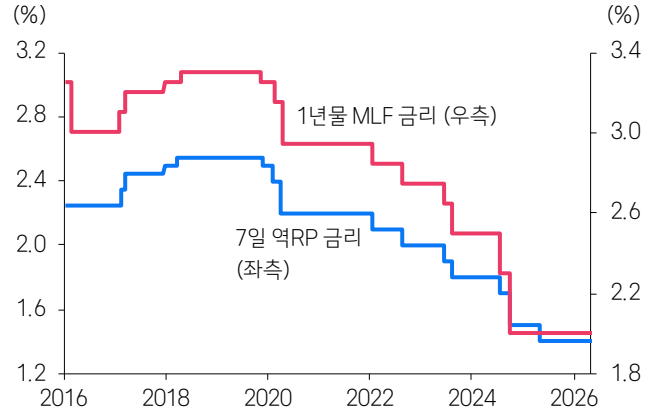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해종합 지수 Forward P/E Valuation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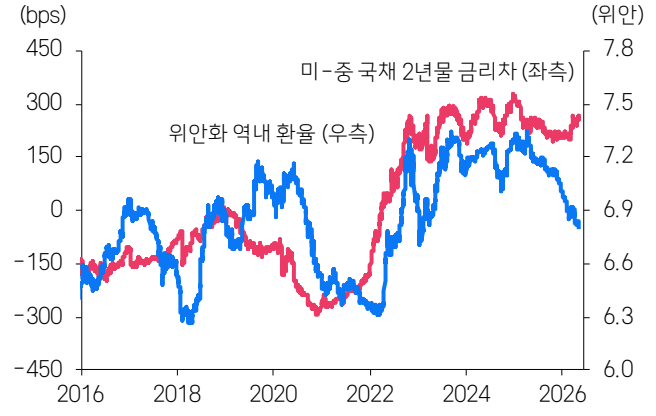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1년물 MLF 금리와 7일물 역RP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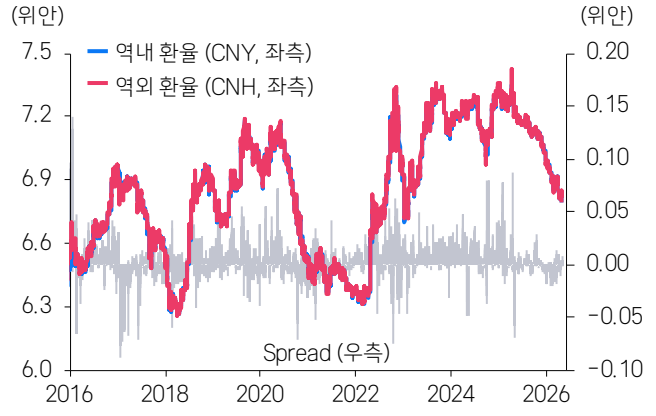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중 금리 차와 위안화 역내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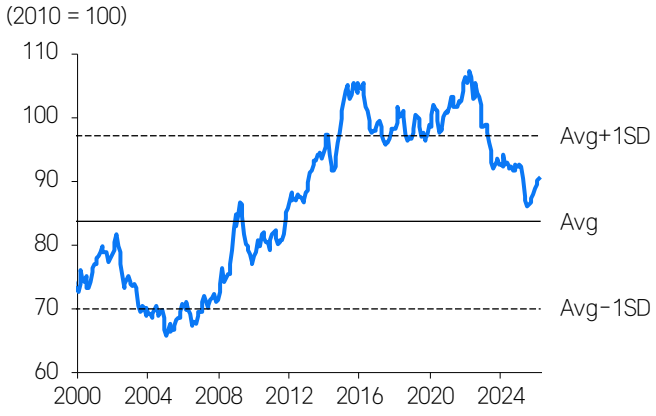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위안화 환율 추이: 역내(CNY) vs. 역외(CNH)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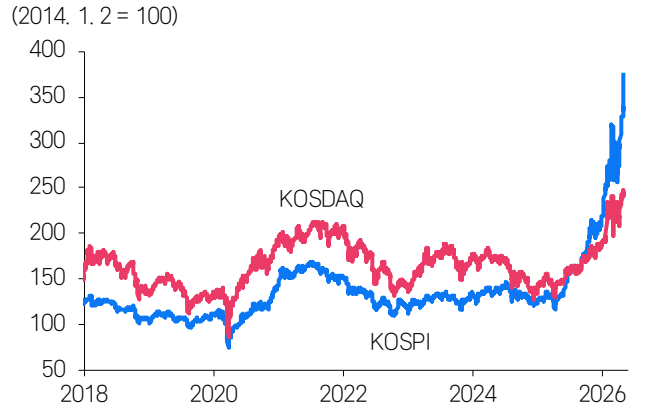
위안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



자료: BIS,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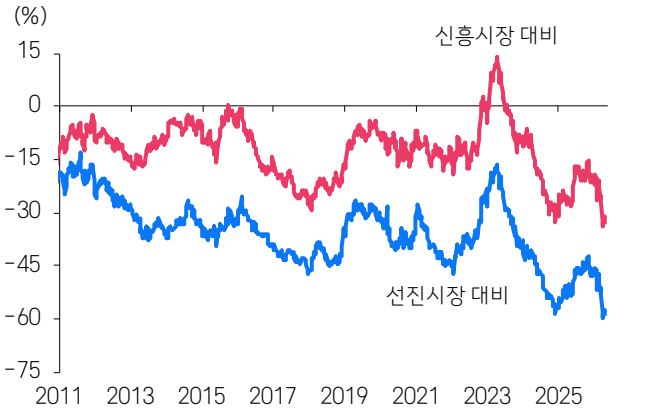
〉〉 한국

한국 KOSPI와 KOSDAQ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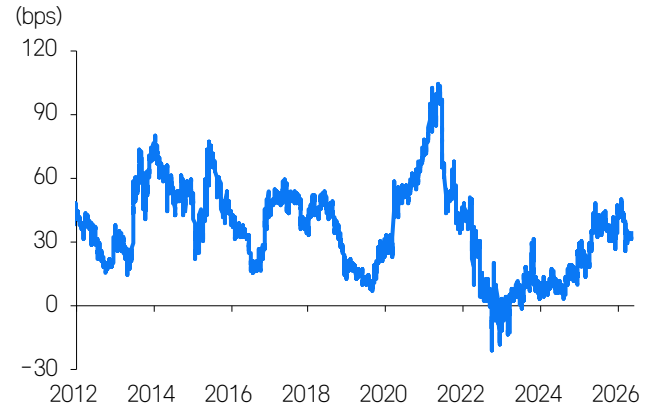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OSPI Forward P/E 밸류에이션 할증/할인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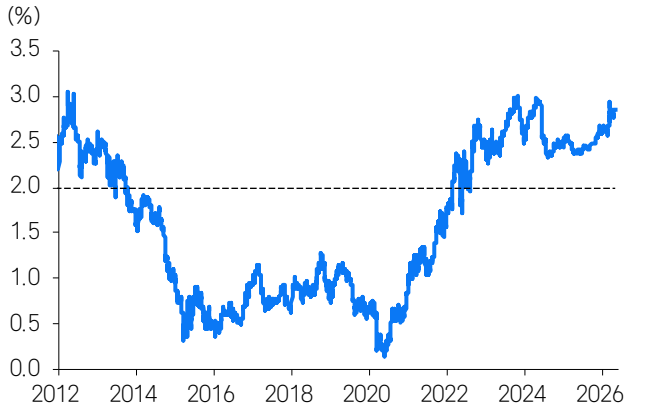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장단기 금리 차 (국고 10년-국고 3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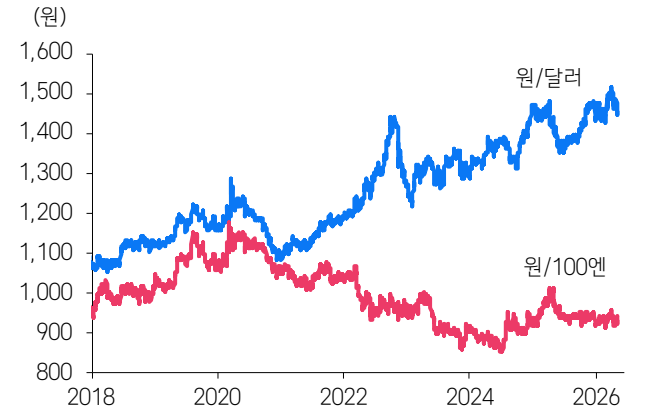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10년 BE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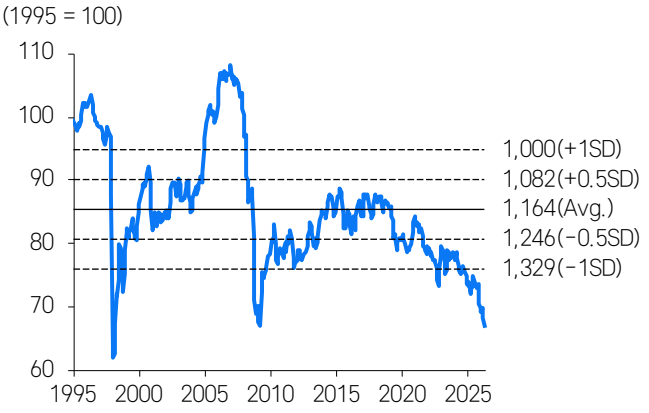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달러와 원/100엔 환율



자료: Bloomberg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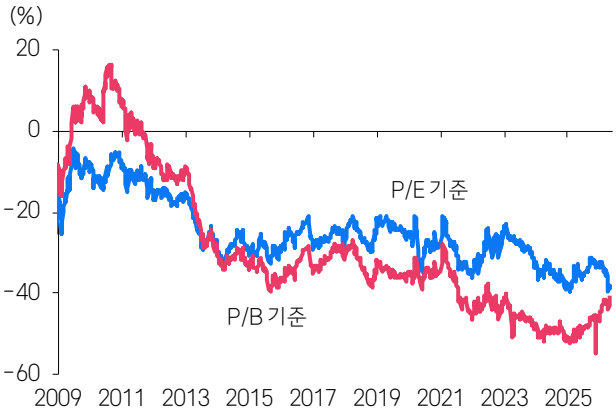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 신흥국

선진시장 대비 신흥시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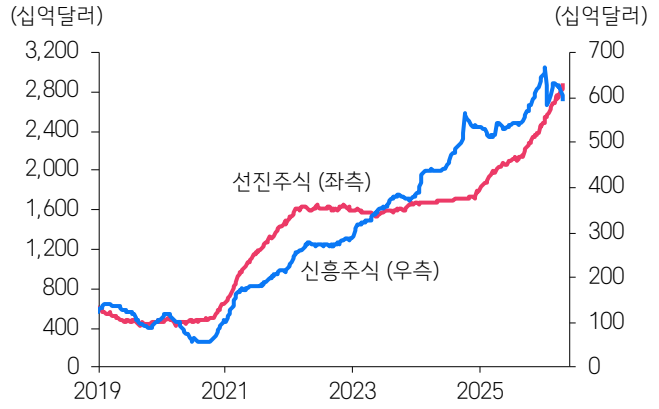
참고: MSCI USD 지수 기준
자료: Refinitiv

선진시장 대비 신흥시장 할증/할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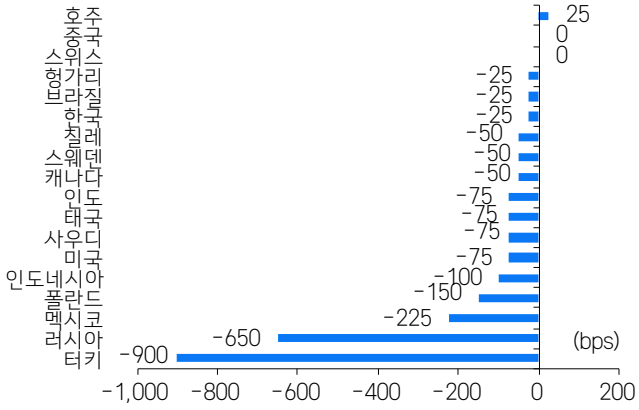
참고: 12개월 forward P/E 및 P/B. MSCI 선진국 및 신흥국 지수 기준
자료: Refinitiv

선진/신흥 시장 주식형 펀드 누적 Fund Flow



자료: EPFR, 삼성증권

주요국 정책 금리 변화 (12개월 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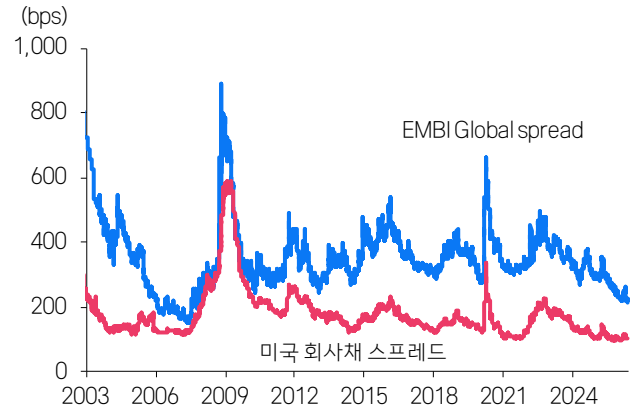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JPMorgan Emerging Currency Index

자료: JPMorgan,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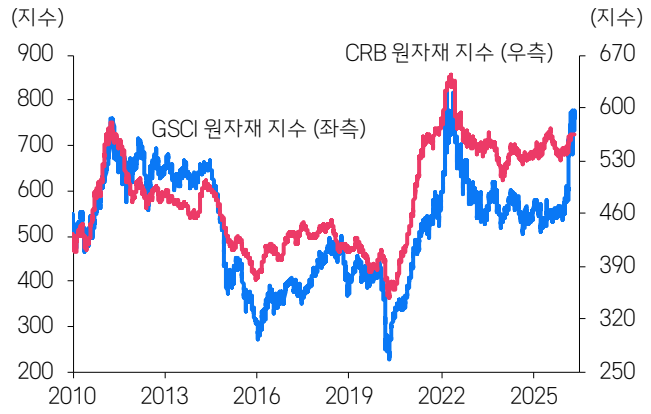
EMBI Spread와 미국 회사채(BBB)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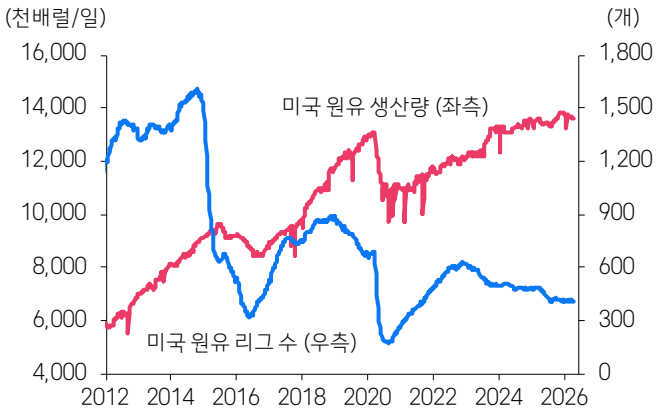
〉〉 주요 원자재

GSCI Commodity Index / CRB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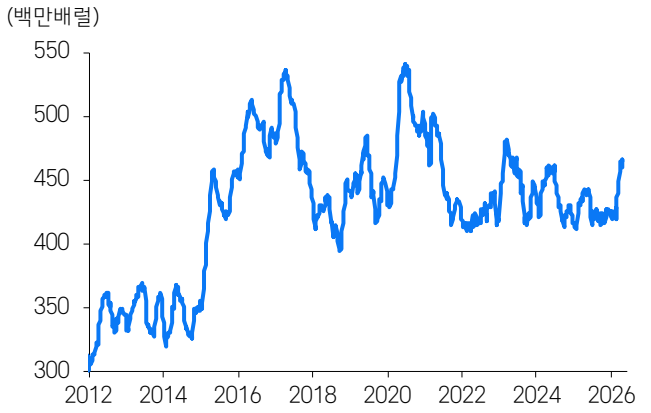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원유 리그 수와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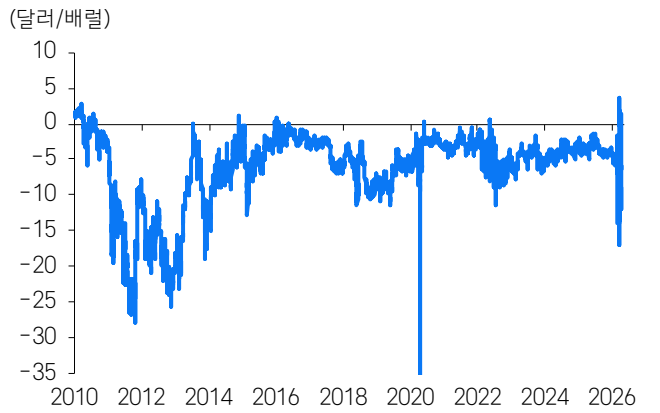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Baker Hughes

미국 원유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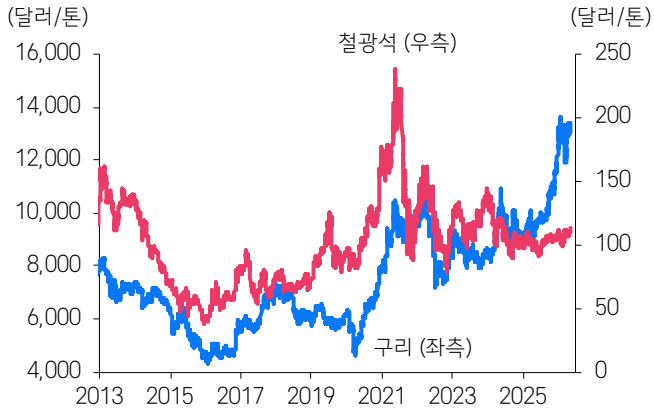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WTI/Brent 유가 sp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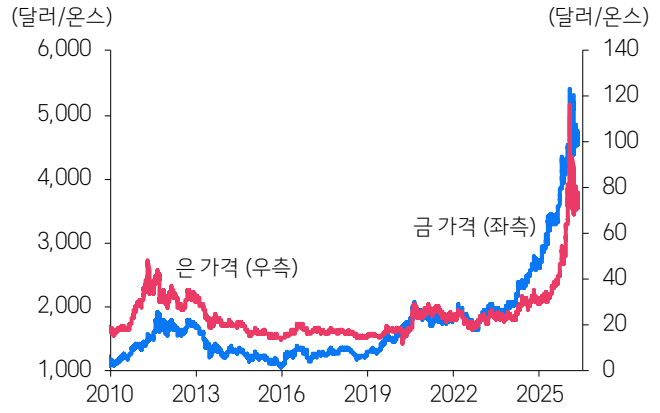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구리 및 철광석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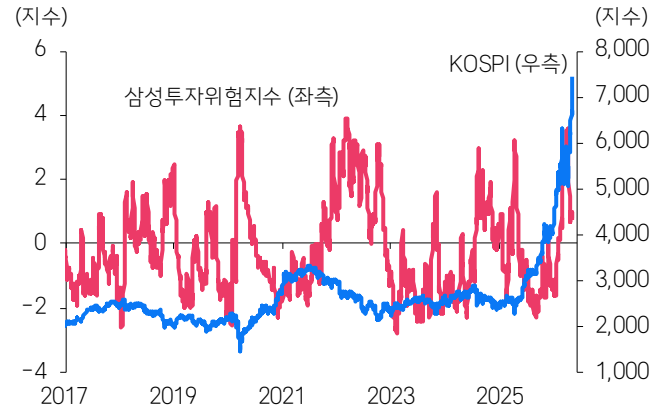
금/은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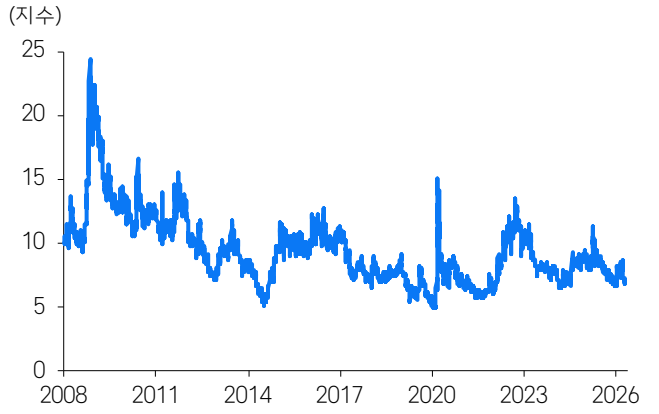
〉〉 변동성 지표와 CDS Premium

삼성 투자위험 지수(Samsung Risk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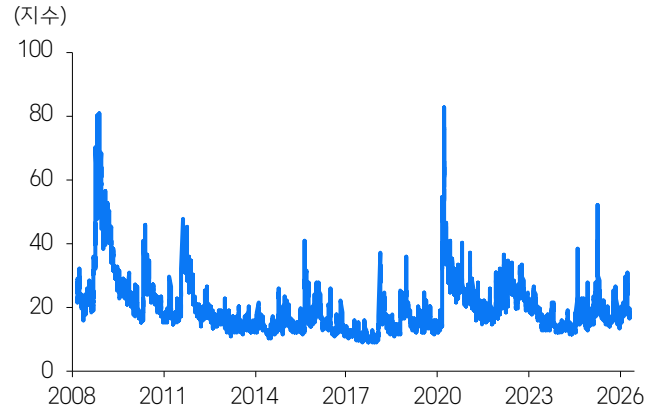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Bloomberg, 삼성증권

FX Volatilit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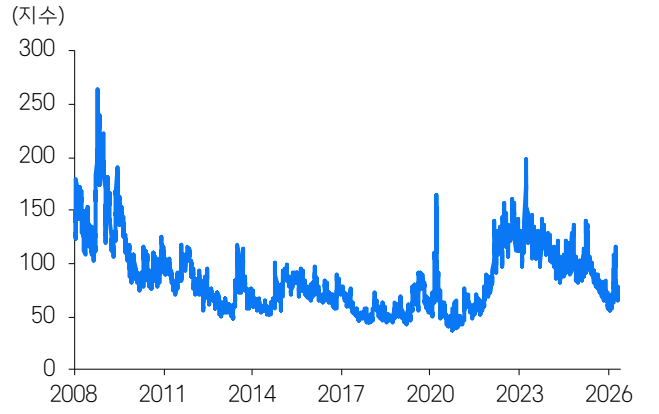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VI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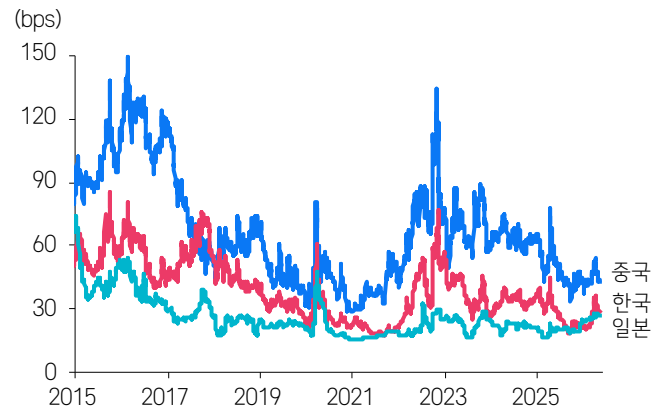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ov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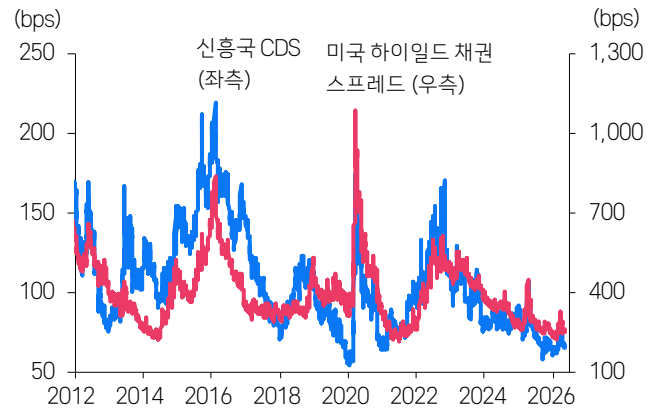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 중국, 일본 CDS premium



참고: 5년물 기준
자료: Refinitiv

신흥국 CDS와 미국 하이일드 채권 스프레드



참고: S&P Global EM CDX 구성국 중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 제외, 각국 CDS를 명목 GDP로 가중 평균하였음. 2022년 3월부터 러시아 제외
자료: Refinitiv, Bloomberg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